동물복지 공약(안) – 4대 핵심 세부공약 상세 추진계획

"생명존중의 파도, 부산에서 시작됩니다 – 동물복지 국가 선도 도시, 부산"

핵심공약 1. (국가적 위상) '국립 동물복지진흥원' 유치 × 삼정더파크 연계 특화동물원 전환

▶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삼정더파크'(2026년 부산시 인수, 478억 원 규모, 부지 84,784㎡, 123종 1,200여 마리 보유)를 기존의 '관람·전시 중심 동물원'에서 동물복지·질병관리·종보전·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영남권 거점동물원'(청주·광주 모델)으로 전환한다.

더불어 그 부지 내 또는 인접지에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립 동물복지진흥원'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행동교정 및 입양 전 재사회화를 전담하는 '독일 티어하임(Tierheim) 모델의 선진 동물보호센터'를 함께 배치하여, 인간-동물-환경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부산 동물복지 융합단지(가칭)'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전시동물원'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탈피하고, 야생동물(거점동물원) 보전과 유기 반려동물(티어하임) 보호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동물복지에 관한 연구·정책·교육·재활·입양이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전국 유일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한다.

❶ 세부내용

- 국가 컨트롤타워 유치: 동물복지 정책 연구, 학대 방지 모니터링, 윤리 교육을 총괄하는 국립 동물복지진흥원을 유치하여 부산을 '동물권의 메카'로 조성
- 삼정더파크 → 영남권 거점동물원 전환: 청주동물원(중부권), 우치동물원(호남권)에 이어 삼정더파크를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추진 – 거점동물원 지정 시 국비 지원으로 시 운영비 부담 완화
- 전시동물원에서 복지형 동물원으로 단계적 재편: 기존 사파리·맹수 전시 위주 사육환경을 행동풍부화(behavioral enrichment) 시설로 개선하고, 야생동물치료·종보전(멸종위기종 증식)·질병관리(검역·방역)·교육 기능을 신설
- 현재 보호할 공간이 없는 사육곰(약 200두)을 매입하여 생츄어리(보호소) 기능을 통한 생면존중 동물원 이미지 구축

※ 사육곰 : 1970년대 국가가 장려한 사육곰 산업으로 인해 국내에 수입·번식되어 왔었으나,

우리나라가 1993년 CITES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산업으로 영위되지 못해 서서히 도태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사육곰 농가에 거의 방치된 수준으로 사육되고 있어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환경부에 의해 구례군과 서천군에 사육곰 생츄어리가 지어져 있으나 수용 한계로 200여두가 농장에 남아 있음

- 동물복지진흥원-거점동물원 연계 운영: 진흥원의 연구·정책 기능과 거점동물원의 현장(보호·재활·교육) 기능을 결합한 통합 동물병원·연구동 운영
- 관련 일자리 창출: 국립기관 및 거점동물원 운영에 따른 수의사, 사육사, 행동치료사, 연구원 등 전문직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스타트업 밸리 조성
- 독일 티어하임(Tierheim) 모델 도입: 단순 보호 및 안락사 위주의 기존 유기동물 보호소를 탈피하여, 쾌적한 사육 환경, 체계적인 의료 지원, 입양 전 행동교정 및 재사회화 교육을 전담하는 선진국형 동물보호센터(한국형 티어하임) 조성
- 원헬스(One Health) 기반 생명존중 삼각 클러스터 구축: 진흥원의 정책 연구, 거점동물원의 야생동물 보전, 티어하임의 반려동물 복지를 하나로 묶어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융합 인프라 완성

❷ 기대효과

- 윤리적 도시 브랜드: '생명을 존중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정주 여건 개선
- 기존 동물원 논란 해소: 2020년 휴관 사태 등으로 누적된 '전시동물원' 부정 이미지를 '동물복지 거점'으로 전면 전환하여 시민 신뢰 회복
- 재정 효율화: 거점동물원 국비 지원 확보로 인수·운영에 따른 시 재정 부담(478억 원 인수금 등) 완화
- 미래산업 선점: 동물복지 관련 법률, 의료, 윤리적 산업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의 중심지로 부상
-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거점동물원 운영을 통한 전문직 일자리 및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
- 안락사 최소화 및 입양률 극대화: 티어하임의 체계적인 행동치료와 재사회화 시스템을 통해 유기동물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입양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반려동물 선순환 생태계 확립

❸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 단계	추진 내용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년차 (체계 정비)	• 국립 동물복지진흥원 유치 타당성조사 및 부지 선정(삼정더파크 연계 배치안 포함) • 삼정더파크 운영권 인수 마무리(2026.4) 및 '동물원 정상화 구상·운영 기본계획' 확정 • 삼정더파크 영남권 거점동물원 지정 신청(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 '부산 동물복지 융합단지' 마스터플랜 수립(진흥원·거점동물원 배치 계획) • 독일 티어하임 모델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원헬스 클러스터 연계 방안 포함)
2~3년차 (확산 및 유치)	• 국립 동물복지진흥원 착공 및 유치 확정 • 삼정더파크 거점동물원 정식 운영 개시(2027년 정상화 목표와 연계) • 전시 위주 사육시설의 행동풍부화·보전·재활 시설로의 단계적 개보수 착수 • 진흥원-거점동물원 통합 동물병원·연구동 연계 프로그램 가동 • 한국형 티어하임 부지 선정 및 시설 건립 착공(행동치료실, 입양상담소, 대규모 야외활동장 포함)
4년차 (선도 도시 정착)	• 국립 동물복지진흥원 개원 및 전국 단위 동물복지 사업 주도 • 삼정더파크 '동물복지 거점동물원' 전환 완료 – 전시 중심에서 보전·재활·교육 중심 동물원으로 정착 • 부산형 동물복지 융합단지 모델을 전국 표준 모델로 확산 • 한국형 티어하임 개소 및 정식 운영 개시 – 선진 반려동물 입양 및 윤리 교육의 전국적 메카로 정착

❹ 추진기간

장기 (4년 이상). 단, 삼정더파크 인수·정상화는 2026년부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으로, 진흥원 유치와의 연계 작업은 1년차부터 즉시 착수 가능. 티어하임 모델 조성 역시 1년차 기본구상을 시작으로 4년 내 완공을 목표로 동시 추진.

❺ 연차별 예산계획

연차	재원	내용 및 금액

연차	재원	내용 및 금액
1년차	시비/국비	• 삼정더파크 인수 계약금 및 운영비(2026년 1차 추경 기편성분 75억 원 포함) • 국립 동물복지진흥원 유치 타당성조사 및 부지 선정 용역비 약 5억 원 • 거점동물원 지정 신청 기본계획 용역비 약 2억 원 • 독일 티어하임 모델 도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비 약 2억 원
2~3년차	국비 중심	• 국립 동물복지진흥원 건립 국비 약 500~1,000억 원 확보 추진(시 부담 최소화) • 삼정더파크 행동풍부화·보전·재활시설 개보수 및 통합 동물병원 구축 시비 약 100억 원 • 거점동물원 운영 국비 지원 확보(지정 시 운영비 일부 국비 충당) • 한국형 티어하임 시설 건립 시비/국비 확보(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 지원사업 등 연계) 약 150억 원
4년차	국비/시비	• 진흥원 개원 운영비(국비 지원 중심) • 거점동물원 정상 운영비(국비 지원으로 시비 부담 경감) • 티어하임 운영비 및 행동치료사 등 전문인력 인건비(국/시비 매칭 및 민관 협력 펀딩 활용)

핵심공약 2. (세대 공감) '은빛 동행, 생명 잇기' 프로젝트

❶ 세부내용

- 시니어-유기동물 매칭 '가족결연': 유기동물 보호소의 동물을 노인가구에 매칭하고, 시가 사료비·의료비·사후처리(장묘)까지 전 생애 복지비용을 지원
- 어르신 동물복지 도우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동물 학대 예방 감시단 및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업무를 부여
- 시니어는 운동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동물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는 가구를 선별

❷ 기대효과

- 사회적 치유: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명과의 교감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우울증 감소, 치매 예방)
- 노인 일자리 창출: 동물복지 분야 신규 일자리를 통한 초고령사회 노인 일자리 모델 확립
- 유기동물 보호소 적체 해소: 입양 활성화를 통한 보호소 부담 완화

❸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년차 (체계 정비)	• '동행 기금(가칭)' 조성 및 운용 체계 수립(노인복지예산+반려동물 예산 통합관리) • 시니어-유기동물 매칭 프로그램 설계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유기동물보호소·노인복지관·동물병원 협력 MOU 체결
2~3년차 (확산 및 유치)	• 시니어 매칭 시범사업 500가구 시행(전 생애 복지비용 지원 개시) • 어르신 동물복지 도우미 사업을 통한 노인-동물 동행 일자리 2,000개 단계적 창출 • 민간 협력(반려동물 사료·보험사 CSR) 협약 체결 및 재원 보강
4년차	• 부산형 세대공감 복지모델 완성 및 효과성 평가

추진 단계	추진 내용
(선도 도시 정착)	• 전국 확산을 위한 표준 모델화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대응

❹ 추진기간

중기 (2~4년). 동행기금 조성 및 매칭 프로그램 설계는 1년차부터 즉시 착수.

❺ 연차별 예산계획

연차	재원	내용 및 금액
1년차	시비	• 동행 기금(가칭) 조성 및 매칭 시스템 구축비 약 10억 원
2~3년차	시비/민간	• 시니어 매칭 500가구 전 생애 복지비(사료비·의료비·장묘비) – 가구당 연 약 100만 원 기준 연 약 5억 원 • 노인-동물 동행 일자리 2,000개 인건비(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시비 분담분) • 민간 CSR 협약을 통한 보충 재원 확보
4년차	시비	• 세대공감 복지모델 안정화 운영비 및 확산 비용

핵심공약 3. (윤리적 의료) '공공 동물복지의료센터' 및 보호소 권역별 설립

❶ 세부내용

- 취약계층 및 유기동물 전담 의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동물에게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생명 유기 방지
- 과잉진료 방지 및 진료비 투명화: 시 차원의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을 보급하여 동물복지의 경제적 문턱을 낮춤

❷ 기대효과

- 경제적 사유로 인한 동물 유기·방치 방지
- 동물 의료비 투명성 제고로 시민 신뢰 회복
- 권역별 보호소·의료센터 분산 설립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

❸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년차 (체계 정비)	• 권역별(동·서·남·북권) 공공 동물복지의료센터 부지 선정 및 설계 •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TF 구성(부산시·수의사회 협력)
2~3년차 (확산 및 유치)	• 1권역 공공 동물복지의료센터 착공 및 개소 • 취약계층·유기동물 전담 의료 지원사업 시범 시행 •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 시범 적용 및 진료비 공시제 도입
4년차 (선도 도시 정착)	• 권역별 의료센터 단계적 확충(추가 권역 착공) • 표준 가이드라인 전면 시행 및 진료비 투명화 정착

❹ 추진기간

중기 (2~4년)

❺ 연차별 예산계획

연차	재원	내용 및 금액
1년차	시비	• 권역별 부지선정 및 설계비 약 5억 원 • 표준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비 약 1억 원
2~3년차	시비	• 1권역 공공 동물복지의료센터 건립비 약 30억 원 • 취약계층·유기동물 전담 의료지원사업 운영비 연 약 5억 원
4년차	시비	• 추가 권역 의료센터 건립비(1권역당 약 30억 원) 및 전체 운영비

핵심공약 4. (상생 문화) '동물 학대 제로(Zero) & 공존 교육' 의무화

❶ 세부내용

- 생명 존중 의무 교육: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의 언어 이해 및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생애 주기별 맞춤형으로 운영
- 동물복지 경찰제(사법경찰권) 강화: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구조 체계를 구축

❷ 기대효과

- 동물학대 발생률 50% 이하 감소
- 생명 존중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학대 신고·대응 체계 강화
- '동물을 잘 대하는 사회가 사람에게도 안전하다'는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폭력 예방 효과

❸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년차 (체계 정비)	•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성인·노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동물복지경찰 전담인력 TF 구성 및 운영 체계 설계
2~3년차 (확산 및 유치)	• 동물권 교육 의무화 프로그램 단계적 실시(학교·공공기관·지역사회) • 동물복지경찰제 시범 운영(권역별 전담반 배치)
4년차 (선도 도시 정착)	• 동물학대 발생률 50% 이하 감소 목표 달성 • 동물복지경찰 전담 구조체계 전면 완비 및 상설화

❹ 추진기간

단기~중기 (1~4년). 교육 프로그램은 1년차부터 즉시 시행 가능

❺ 연차별 예산계획

연차	재원	내용 및 금액
1년차	시비	•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약 2억 원 • 동물복지경찰 전담인력 채용·운영 준비비 약 1억 원
2~3년차	시비	• 동물권 교육 운영비 연 약 3억 원 • 동물복지경찰제 인력 운영비 연 약 5억 원
4년차	시비	• 교육·경찰제 안정화 운영비(연 약 8억 원 수준 유지)

핵심공약 5. (청년 일자리) 반려동물과 함께 성장하는 펫 프렌들리(Pet-friendly) 해양도시 추진

❶ 세부내용

- 펫테크·펫푸드 특화 클러스터 조성: 침체된 사상공단 등 노후 산단을 재생하여 AI·IoT 기반 스마트 펫 헬스케어 및 펫푸드 특화 R&D 센터, 제품인증 기관 우선 유치
- 지산학 연계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대학(I-URP 사업단 등)의 연구 역량과 연계한 '**부산 펫 비즈니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여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에 맞는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자금·기술 컨설팅 집중 지원
- 해양·관광 융복합 펫 인프라 고도화: 광안리·해운대 등 부산의 핵심 해양 인프라를 활용한 전용 구역(댕수욕장) 지정, 반려견 동반 숙박·식음료(F&B) 시설 인증제 전면 도입
- 글로벌 MICE 연계: 부산의 우수한 마이스 기반을 활용해 '국제 반려동물산업 박람회'를 유치 및 정례화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 기업 간 비즈니스 네트워킹 거점 확보

❷ 기대효과

- 스타트업 및 글로벌 기업 100개사 유치로 지역 경제 다변화 달성 및 청년·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 펫산업과 부산 주력산업(관광, 유통, 첨단의료) 간의 시너지 창출로 전후방 연쇄적 부가가치 생산 및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 반려동물 친화 공원 및 공공 인프라 20개소 이상 확충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및 원헬스(One Health) 복지 실현

❸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 단계	추진 내용
1년차	•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및 특

추진 단계	추진 내용
(기반조성 및 제도 마련)	구 지정 건의 • 특별회계 편성을 통한 지방비 확보 및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 적극 대응 • 사상공단 내 펫 산업 복합단지(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
2년차 (인프라 구축 및 특화 R&D 착수)	• 지역 대학 연계 '부산 펫 비즈니스 창업보육센터' 개소 및 1기 입주기업 선발 • 펫푸드·펫테크 R&D 센터 및 제품 인증 기관 착공 • 주요 해수욕장 댕수욕장 시범 운영 및 반려견 동반 시설 인증제 실시
3년차 (산업생태계 확산 및 비즈니스 활성화)	• R&D 센터 본격 가동 및 AI/IoT 펫 헬스케어 시제품 사업화 지원 확대 • 스타트업 및 관련 기업 유치 로드쇼 개최 • 제1회 부산 국제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개최 및 친화 공원 등 공공 인프라 확충 가속화
4년차 (선도 도시 정착)	• 연관 기업 100개사 유치 및 청년·전문 일자리 5,000개 창출 목표 달성 • 국제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정례화 및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화 • 공공 편의시설 20개소 완공을 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부산' 글로벌 브랜드 완성

❹ 추진기간

단기~중기 (1~4년). 조례 개정, 관광 인프라시범, '부산 펫 비즈니스 창업보육센터' 운영은 기존 반려동물산업특화 I-URP사업단 구조 개편 등으로 1년 차부터 즉시 시행 가능

❺ 연차별 예산계획

연차	재원	내용 및 금액
1년차	시비/국비	• 펫테크·펫푸드 R&D 센터 및 산단 재생 기본/실시

연차	재원	내용 및 금액
		설계 용역 2억 • '부산 펫 비즈니스 창업보육센터' 시설 리모델링 및 초기 운영비 10억 • 댕수욕장 및 관광 인프라 시범구역 지정 연구용역 매년 1억
2년차	시비/국비/민간	• 사상공단 내 R&D 센터 및 제품 인증 기관 착공 건축비 1차, 30억 *르네시떼 등 기존 시설 활용 • 반려동물 친화 공원(5개소) 부지 매입 및 기초 토목 공사 20억 • 스타트업 펀드 조성(민자 매칭) 및 창업 지원금 매년 20억
3년차	시비/국비/민간	• R&D 센터 완공 및 첨단 연구·인증 장비(AI, IoT, 바이오 분석 등) 도입 100억 • 친화 공원(누적 15개소) 조성 공사 및 편의시설 확충 40억 • 반려동물 동반 관광 인증제 실시 및 체류형 상품 개발 5억 • 스타트업 후속 투자(민자) 및 시제품 양산 지원 20억
4년차	시비/국비/민간	• 제1회 '부산 국제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개최 및 마케팅 15억 • 친화 공원(총 20개소) 조성 완료 및 유지보수 시스템 구축 20억 • 기업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및 R&D 센터 고도화 30억